

# 인화성 물질 탓 급속 확산... 공장 절반 소실·생산 중단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신고 접수 대응단계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화재 원인 정련 공장 스파크 추정 일부 주민 대피... 2차 피해 우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도심에 뒤덮은 검은 연기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남긴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번 사고는 생산 차질을 넘어 환경·안전 문제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오전 7시 11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접수 10분여만에 대응 1·2단계를 발령했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고성능 화학차, 무인파괴 방수차 등 장비 149대, 인력 452명, 헬기 11대를 긴급 투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지역 소방력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국가차원에서 현장에 소방력을 투입하는 소방청장령을 말한다. 화재 현장에는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어 대구와 전북, 충남 등에서 고성능화학차 15대가 지원됐다. 이외에도 무인파괴 방수차 4대(대전·세종·충남·경남), 대응량포방시스템 2기 배치, 재난회복차량 1대(전남)도 배치됐다.

화재 원인은 금타 2공장인 정련 공장 내 고무를 예열하는 오븐장치에서 발생한 스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파크로 추정되고 있다. 정련 공장은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 공정을 하는 작업장으로, 고무를 예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씨가 이번 대형 화마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작업장에는 약 20톤의 생고무가 저장돼 있었고, 정련 공정 특성상 인화성

물질이 밀집돼 있어 화재 확산이 빨랐다. 이번 화재로 공장 근로자 1명이 대피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2명도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금호타이어 측은 광주공장 전체 생산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불이 발생한 2공장 부지 23만㎡ 중 50% 이상

인 14만952㎡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며, 복구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1200만본, 국내 생산 타이어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공장이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매출 4조 5381억원을 기록했지만, 이번 화재로 실

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호타이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지역 완성차 공장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 외에도 다른 타이어 업체(한국·넥센 등)에게 물건을 공급받고 있어 생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또한 금호타이어 물건의 경우, 곡성공장으로 부터 공급받고 있어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도시를 뒤덮은 검은 연기와 오염물질 확산이다.

화재로 일어난 검은 연기가 광주 도심과 무등산 일대까지 퍼졌고, 화재 직후 인근 지역에서는 탄화된 고무 성분으로 추정되는 검은 재도 발견됐다.

이에 공장 인근 주민들은 “배란다 창틀에 재가 내려앉고 아이들과 친척 집으로 피신했다”며 피해 불안을 호소했다.

광산구는 화재 직후 1만5000개의 방진 마스크를 배포하고,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재난 대피소를 마련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총 71세대132명의 시민이 대피 중이다.

공장이 영산강·황룡강 합류부 인근에 위치한 만큼 화재 진화에 사용된 오염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우수관로 차단, 오일펜스 설치, 농업용수 차단 등 수질 보호 조치를 병행 중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하루 만에 해제

타 지역 소방 인력·장비 동원 주불 진화로 18일 오후 철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소방청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불 진화 완료에 따라 하루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관할 소방서는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에 공장 내 생고무 20톤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 여러 동을 집어삼키며 확산되자 같은 날 오전 7시5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화재 규모와 확산 속도를 고려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이는 광역 단위의 소방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 타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조치다. 실제로 대구, 전북, 충남, 전남, 경남 등지에서 고성능 화학차 15대를 포함한 소방장비 100여 대와 소방대원 355명이 투입됐고, 4만5000㎡ 급 및 3만㎡ 급 대응량포방사시스템 2대도 현장에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주불이 18일 오전에 잡힘에 따라 오후 2시50분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어 오후 3시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앙 119구조본부 제외된 타 시도 소방 인력은 철수한 상태. 정승우 기자

## 금호타이어 화재로 광주 도심 대기오염 우려 확산

검은 연기 확산... “재 쌓였다” 신고 유해 화학물질 방출...벤젠 등 검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진화되지 못한 채 장시간 이어지면서, 광주 시민들 사이에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빠르게 공장 내부로 확산됐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구조와 내부의 생고무, 화학약품 등의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길은 견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짙은 연기는 광주 도심과 무등산 일대까지 퍼졌고, 화재 직후 인근 지역에서는 탄화된 고무

성분으로 추정되는 검은 재가 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송정동, 어룡동 등 광산구 일대 주민들은 “대낮에도 시야가 뿌옇고, 차 위에 재가 쌓이는 등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이동식 측정차량이 17일 광주공장 주변에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측정 결과도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이황화탄소, 에틸렌옥사이드, 벤젠, 염화수소 등 주요 유해물질이 다수 시간대에서 검출됐다.

특히 오후 2시에는 이황화탄소가 0.05ppm, 에틸렌옥사이드가 0.046ppm, 벤젠이 0.022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기준값보다 높지 않지만, 지속적 노출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정련 공장은 생고무와 다양한 화학약품이 혼합되는 공정으로, 약 20톤의 생고무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이 연기와 함께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해당 물질 모두 검출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고무 및 화학물질 화재는 단순한 화염 피해를 넘어, 대기 중 유해물질 확산이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실시간 측정과 함께 신속한 공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 이재명, ‘군공항 이전 3대 원칙’... “국가가 직접 책임”

▶1면서 계속 이 후보는 이어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례를 들며 “물리적 강제 철거는 1%도 안 된다. 99%는 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철거했다”며 “살 길을 마련해 줬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의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의 갈등 조정, 무안 군민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같은 ‘3대 원칙’은 현재의 교착 상황 해결에 딱 맞는 해법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광주시도 공항 이전을

통해 서남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현 진보당 광산구의원은 “국가가 주도한다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단순한 표심 공략에 불과하지 않길 바란다”며 “무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전투기 분산 배치나 무안 농산물 정부 매입 등 실질적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언했다.

## 정치권, 주민 대피소 찾아 피해 복구·지원 약속

이재명, 주민 위로·신속 복구 촉구 김용태 “지역경제 침체 적극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대피소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금호타이어 화재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우

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공장 부상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화재가) 진화되고 부상자는 빠른 쾌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17일 오전 페이스북에는 “소방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8일 오전 주민 대피소를 찾아 “근로자 피해와 지역 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광주여대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민대피소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정부가 선제 대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도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고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 외에 안철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과 김소희·박종권·우재준·조지연 의원이 금호타이어 화재 주민대피소에 함께 방문했다. 정성현 기자